

[ 기획 ]



최근 문화공간 부지를 기증하거나, 작가들의 작품 재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메세나 활동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기업이 내놓은 부지에 들어선 부산의 대안문화공간 '오픈스페이스 배'. <오픈스페이스 배 제공>

■ 개인, 모임, 기관 후원도 발굴하자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나 모임, 기관이 예술인이나 단체의 후원자로 참여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메세나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작품을 인정해주고, 예술활동을 격려해주는 개인후원회는 모든 예술인들의 꿈.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 박정자씨는 300명의 열성팬으로 구성된 '꽃봉지회'라는 개인 후원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바빠서 처럼 유명인을 제외하고는 그런 후원회를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는 26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음악회-문화의 등불이 되어...'는 그래서 눈길을 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을 지원하는 후원회가,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구성됐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잡기에 충분하다. 이번 공연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의 민간 연주단체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를

부산서 지휘자 오충근씨 후원회 창립 티켓 구매·공연 홍보 등 훈훈한 '인연'



부산의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개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단체다. 오는 26일 연주회를 갖는 오충근씨.

이끌고 있는 지휘자 오충근(47·고신대 교수)씨의 개인 후원회가 마련한 연주회다. 후원회는 지난 1년간 오씨의 공연 티켓을 구매해 소외계층과 함께 나눴고 올해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초대해 오 씨에게 지휘봉을 맡길 계획이다. 20명으로 시작한 후원회는 현재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꿈나무 회원(회비 1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아직 개인이나 기관 후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크로스오버 앙상블 '허브'가 광주지 방감찰청과 결연해 맺고 있는 게 눈에 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티켓을 구입해주고, 지인들에게 공연을 홍보해주는 등 각자지만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허브의 방극단 단장은 "후원 단체가 거창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 단체를 생각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훈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장인 김진천(경상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오충근이라는 개인을 후원하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 모임은 척박한 부산의 클래식 공연계, 나아가 부산 문화 전체를 조금씩 바꿔 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이나 기관 후원이 많이 생긴다면 문화 환경들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공간 기증으로 따뜻한 터 닦기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7>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메세나 하

기업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티켓을 구입하거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갤러리나 다목적홀 등을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안 공간들이 문화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미술가들에게 작품 재료를 지원해 주는 등 색다른 메세나 활동이 늘고 있다.

기업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티켓을 구입하거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갤러리나 다목적홀 등을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안 공간들이 문화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미술가들에게 작품 재료를 지원해 주는 등 색다른 메세나 활동이 늘고 있다.

기업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티켓을 구입하거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갤러리나 다목적홀 등을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안 공간들이 문화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미술가들에게 작품 재료를 지원해 주는 등 색다른 메세나 활동이 늘고 있다.

기업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티켓을 구입하거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갤러리나 다목적홀 등을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안 공간들이 문화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미술가들에게 작품 재료를 지원해 주는 등 색다른 메세나 활동이 늘고 있다.

티켓 구입·제작비 지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 색다른 '문화공간' 거듭...메세나 업그레이드

기업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티켓을 구입하거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갤러리나 다목적홀 등을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안 공간들이 문화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미술가들에게 작품 재료를 지원해 주는 등 색다른 메세나 활동이 늘고 있다.

기업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티켓을 구입하거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갤러리나 다목적홀 등을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안 공간들이 문화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미술가들에게 작품 재료를 지원해 주는 등 색다른 메세나 활동이 늘고 있다.

기업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티켓을 구입하거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갤러리나 다목적홀 등을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안 공간들이 문화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미술가들에게 작품 재료를 지원해 주는 등 색다른 메세나 활동이 늘고 있다.

일가공인중개사
☎(대)294-8216
상가건물 매도
토지매매
전입주택
임야
기타부동산

솔로몬공인중개사
☎(대)1644-9644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특용량 임대 급히 구함
시의 농장부지 급히 구함
수익성 좋은 원룸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건물
땅
주유소 전문중개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2007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